환경교육

고지대경관거점해설 -우이지구(동장대)

활동장소	북한산국립공원 탐방로
소요시간	30분
참가대상	전 연령
참가인원	10명/해설사1명
작 성 자	북한산 우이분소 자연환경해설사

활동목표	• 고지대 탐방 서비스 제공 • 북한산 인식 개선
준비물	• 활동에 간편한 복장, 음료수
유의사항	• 고지대 이동시 안전 요소 확보 • 벌을 비롯한 독해충 유의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 **인사** – 옛 문헌에 기록된 우리나라의 5대 명산 소개	5분
전개 (구술 해설)	• **전략 방어 무기 북한산성** – 북한산성 축성의 목적 • **북한산의 봉우리** – 북한산 봉우리의 형성 과정 – 봉우리 이름의 유래 • **북한산의 4색, 가을 야생화** – 가을 대표 야생화 구분	2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마무리 인사** – 너와나, 우리의 소중한 북한산 – 안전 산행 당부	5분

시나리오

첫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현세의 인연은 전생의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만남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 아쉬움의 결

과로 오늘 여러분과 만나며 꽃을 피웠네요. 반갑습니다.

옛 문헌을 보면 우리나라 5대 명산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한 번 맞춰볼까요? 옛 문헌이니 남북한을 합한 한반도 땅 전체입니다. 북쪽에서부터? 네 백두산입니다. 그리고 묘향산. 또 어디? 네 금강산 지리산. 네 개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북한산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혹시나 5대 명산 4대 명산, 이러한 분류는 선정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니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산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백두산은 보통 민족의 영산(靈山)이라고 하지요. 금강산은 오색 창연한 미를 뽐내고요. 지리산은 웅장미가 있고 묘향산은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 향기가 나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산은? 제가 생각하는 북한산은 오천년 이래 이래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조금 바꿔 말하면 자연은 보전이고 인간은 이용이지요. 북한산에서는 인간 삶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 북한산대피소 고지대 경관해설

전략 방어 무기 북한산성

능선을 따라 늘어선 북한산성은 자연을 이용한 우리 선조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 능선을 따라 성곽을 건설하며 성을 세웠습니다. 이 성곽은 지금 서울 서쪽 연신내 방향에 세워진 대서문을 시작으로 능선을 따라 쭉 늘어서 있습니다.

산성 건설의 목적은? 네 방위입니다.

여러분 한양도성에 대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네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등등 그 성문을 따라 성곽을 쌓아 한양을 보호하였습니다. 물론 그 성곽은 국난을 겪으며 유실되거나 파손되어 일분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한양도성은 조선 초기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조선시대 두 번의 큰 난(亂), 임란과 호란을 겪으며 한양도성만으로는 수도 방위에 부족하

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조선 후기 숙종 때 북한산성 축성 결정하였습니다. 단 6개월 만에 완성하였다고 하네요.

숙종을 비롯한 당시 조정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한양도성이 함락 위기에 처하면 북쪽에 건설한 북한산성으로 몽진하여 수성전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축성 당시 숙종의 언급을 보면 서쪽의 대지가 낮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산성의 대서문이 주 출입문이었습니다. 궁월에서 대서문으로 이동 시 필요한 방어벽도 세워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였습니다. 평창동 쪽 탕춘대성이 그 방어벽입니다.

대서문에서 시작되는 골짜기 길은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북한산대피소로 이어집니다. 급하지 않은 경사이고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계곡길이기에 이 길을 따라 임금이 기거하는 행궁을 건설하였고 의식주에 필요한 창고 및 주요 군사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인공 성곽은 동장대를 거쳐 동쪽으로 이어지다 백운대 인근에서 끊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백운대가 있는 지역은 북한산에서도 험준한 곳이기에 인공 성곽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이용한 방어선, 천연 요새입니다. 백운대 방향에 작은 암문을 두 개 만들어 적의 눈에 띄지 않고 성 외부와 왕래하였습니다. 이 곳 대피소에서 동쪽으로 5분 거리에 용암문을 만들었고 백운대 바로 아래 백운봉암문을 두었습니다.

용암문이란 이름은 북한산대피소 자리에 있던 용암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산성 축성 당시 전국 사찰의 승려가 참여한 기록이 있는데 용암사는 주요 사찰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이 곳이 용암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저기 언덕에 당시 돌탑이 남아있습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20분 거리에 동장대가 있습니다. 장수가 적의 동태를 살피며 영(令)을 내리던 망루입니다. 동장대가 위치한 자리는 성 외부뿐만이 아니라 산성 내부도 잘 보입니다. 동장대에서 선 장수는 성 내외부의 상황을 두루 살피며 시시각각 명을 내렸습니다.

전망 목적으로 세워진 동장대에서는 북한산의 경관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동장대 전경



▲ 동장대에서 바라보는 북한산 능선

북한산의 봉우리

여러분 한반도 땅의 나이가 약 20억년이라고 합니다. 지질시대로 구분하자면 중생대 쥐라기 시기 한반도 지역에 화강암이 크고 넓게 침투하였다고 합니다. 뜨거운 마그마 관입하여 땅속에서 천천히 식은 지질 현상입니다. 그러다 이 화강암 지역이 땅 위로 크게 융기하는 지질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주먹을 쥐어 올리며) 땅이 이렇게 외부로 노출되었는데 모든 지역의 강도가 같진 않을 겁니다. 어떤 곳은 유난히 단단하고 또 어떤 지역은 무르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 깎아지고 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저 쪽 동장대 오른편으로 아주 근거리에 인수봉이 보이고 살짝 왼편 뒤 쪽으로 백운대가 보이고 또 만경대가 보입니다. 네 자연은 인간이 결코 만들 수 없는 조형물을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하였습니다.

백운대는 북한산의 최고봉으로 해발고도는 836.5m입니다. 하얀 구름이 걸쳐 있다는 백운대라는 이름이 절묘한 것 같습니다. 인수봉은 이름에서 추정

하듯 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만경대라는 명칭에서 도가의 풍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옛적에는 북한산의 이 삼봉을 일컬어 삼각산이라고 하였습니다.

백운대에서 서쪽 방향으로 능선을 따라 세워진 성곽은 동장대를 지나 대동문으로 이어지고 대성문, 대남문으로 이어 집니다. 동장대를 등지고 왼편 능선을 보면 기와지붕이 끝이 살짝 보입니다. 네 저 기와지붕이 대남문입니다. 대남문 왼편으로 보현봉 등 봉우리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정상 정복형 탐방을 자제토록 권유 드리는데 산행의 맛은 능선 종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 북한산성을 따라 북한산 종주를 하시며 고지대 경관을 감상하는 시간도 한 번 정도는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삶 속 어떤 이벤트로 한 번 정도는 준비 시행하여 볼만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보현봉의 맛이 다르듯 보현봉 쪽에서 바라보는 백운대의 운치도 다를 것이고 서울 시내 전경도 곳곳에서 감상하실 수 있고요. 수도 서울의 또 다른 비경입니다.

북한산의 4색, 가을 야생화

북한산은 역사 속 시기만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겨울 설경은 그 자체로 고즈넉한 풍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삭막해 보이는 북한산 모습에서 생명이 다음 삶을 준비하는 열기 서린 모습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삭풍이 가시는 봄이면 봄꽃이 북한산에도 만개 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는 진달래, 그 진달래가 만개하는 북한산 탐방로가 있습니다. 네 동장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진달래 능선이 있습니다. 산 정상부에서 만개한 진달래 사이를 걷는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화사한 봄볕과 함께요.

여름에는 북한산의 아주 초록 초록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부피 생장의 계절 여름을 맞아 활짝 열어 제친 녹색 나뭇잎 사이로 뜨거운 햇살이 얼굴을 따갑게 때립니다. 숨이 가쁠 때쯤이면 여름임에도 기분 좋은 산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름 산행의 묘미이지요.

북한산의 단풍 역시도 도심에서 흔치 않게 즐길 수 있는 묘미입니다. 단풍과 함께 가을에는 정취를 더하는 야생화가 수줍게 핍니다. 화사하지 않게 군데군데 피어난 모습이 어떤 애련함을 줍니다.



▲ 구절초(들국화)



▲ 벌개미취



▲ (개)쑥부쟁이

들국화 듣고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북한산 정상부에는 가을 녘이면 들국화가 만개 합니다. 사진 한 번 볼게요. 들국화가 이런 모습도 보이고 또 이러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꽃은 모두 종이 다릅니다.

얘는 벌개미취이고 얘는 쑥부쟁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가 들국화입니다. 들국화는 구절초라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세 종 모구 묘하게 생김새가 비슷하죠. 이 세 꽃을 구분할 안목을 가지시면 다른 야생화도 나름대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종은 잎 모양이 확연히 다릅니다. 잎 모양 끝이 가장 민무늬에 가까운 게 벌개미취입니다. 잎 모양은 스페이스 모양입니다. 쑥부쟁이 잎은 크기가 벌개미취 잎 절반 정도만 하고 잎 끝에서 갈라지며 벌어집니다. 구절초는 잎 모양이 제일 화려하다면 화려합니다. 클로버 모양과 비슷하지요. 크기도 성인 손가락 두 마디 정도입니다.

그리고 꽃 색깔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벌개미취, 쑥부쟁이는 꽃잎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짙은 색은 아니지만 보라색인 걸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절초는 꽃 색깔이 하얀색이거나 옅은 분홍색입니다.

자 잎 모양과 꽃잎 색깔로 3종을 구분하여 보았고요. 마지막 구절초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구절초는 향이 아주 강합니다. 잎을 살짝 비벼서 냄새를 맡아보면 짙은 향이 납니다. 야생화의 향을 한껏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쑥부쟁이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쑥부쟁이는 중부 지방에서는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곳 경기권에서 보는 쑥부쟁이는 앞에 '개' 자가 붙는 개쑥부쟁이 입니다. 쑥부쟁이는 중부 지방 이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종 역시 생김새가 매우 유사합니다.

두 종의 확실한 구분법이 궁금하신 분은 따로 문의하여 주세요.

(한 겨울 생명이 다 했을 때 뿌리를 뽑아 보면 쑥부쟁이와 개쑥부쟁이가 다

	릅니다. 개쑥부쟁이는 뿌리가 우리가 흔히 보는 모양이고 쑥부쟁이는 뿌리에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다년생초인 쑥부쟁이는 그 마디에서 새로운 줄기가 자라 올라옵니다.) **마무리 인사** 역사 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고궁을 찾습니다. 또 운동 목적으로 부러 체육 시설을 찾기도 하지요. 그리고 심신을 안정하기 위해 풍광이 좋은 휴양지를 찾습니다. 아마도 감이 빠르신 분은 제 다음 말을 눈치 채셨을 겁니다. 네 역사 문화 체험과 운동, 심신 안정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북한산이지요. 수도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후세대의 북한산을 소중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고 가시는 길 안전 산행하시기 바랍니다.